

광주시민 59% “자치경찰 무슨 일 하는지 몰라”

광주 자경위, 교통·생활안전 설문 안전 위협 교통수단 1위 전동킥보드 약자 대상 최우선 근절 범죄는 학폭

광주시민 10명 중 6명은 광주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5월 출범해 지난 9일 임기를 마친 제1기 광주 자경위는 ‘도시철도 공사 구간’ 교통대책 등 지역 맞춤형 시책을 발굴·추진했다고 자평했지만, 각종 교통·안전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에게 실감감만 안겨줬다(광주일보 5월 8일자 2면)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18일 광주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2~26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2.3%는 매우 잘 안다, 8.3%는 잘 안다, 30.5%는 들어 봤다고 답했다. 특히 잘 모른다(34.8%), 전혀 모른다(24.1%)고 응답한 시민이 58.9%에 달해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그나마 60대 이상이 56.5%로 높았고, 젊은 세대인 20·30대는 31%에 머물렀다.

시민들은 또 교통 안전도에 대한 질문에는

36.2%(매우 안전하다 1.9%·안전한 편이다 35.2%)는 안전하다, 48.3%는 보통이다, 15.5%(위험한 편이다 13.9%·매우 위험하다 1.6%)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안전에 위협하는 교통수단을 묻는 질문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37.0%), 이륜차(31.1%), 화물 트럭(14.9%), 택시(7.5%), 승용차(6.2%) 등의 순으로 지목했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도로 구조 등 교통환경 개선(40.8%)을 꼽았으며, 경찰단속 강화(25.9%)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하는 것(복수 응답)으로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범죄(60.4%), 성폭력 등 성범죄(52.2%), 아동학대(28.1%), 스토킹·교제 폭력(18.7%), 가정 폭력(16.8%), 노인학대(11.0%) 등을 꼽았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는 국가 경찰,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가 지역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자치 경찰 체계로 구분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주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치안 분야가 해당한다.

안진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당비 사용’ 광주시의회 의장 경선 토론회 논란

투표권 없는 당원들 당비 사용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시의회 의장 경선 토론회 비용을 부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의장 후보 경선 투표권이 21명의 시의원들에게만 있는데, 당비를 사용해 의장 경선 토론회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대 광주시의회 후보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오는 20·21일 의장과 1·2부 의장 후보 등록을 받는 등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후보 미등록 시 추가 등록은 22일 낮 12시까지 받는다.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후보 등록도 함께 받아 의장 낙선자가 상임위원장에 중복도전할 수 없게 했다.

이번 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장 경선은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 선거 최초로 생방송 TV 토론을 마련해 화제를 모았다. TV 토론회는 오는 25일 또는 27일 광주MBC 주관으로 한차례 열린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인원 수에 따라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23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1명인 만큼 민주당 경선이 곧 의장을 결정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전국 최초의 의장 후보 생방송 TV 토론이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각에서는 의장 선거에 당원이 투표권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낸 당비를 활용해 토론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는 시의원들만 투표할 수 있어 투표권조차 없는 권리당원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셈”이라며 “아무리 광주 지역이 ‘민주당 일색’이라고 하지만 당내 행사라고 볼 수 없는 토론회에 당비를 소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경선은 오는 29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를 즉시 진행한다. 동시 시 다선·연장자순으로 결정되며 모든 선거의 표수는 비공개한다. 경선을 통해 확정된 의장단 후보는 오는 7월 1~3일 본선 후보자 신청을 거쳐 오는 7월 8일 본선을 치른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후보는 초선인 강수훈(서구1)·박수기(광산5) 의원, 재선인 박미정(동구2)·신수정(북구3)·심현의(서구4) 의원 등 5명이다. 그동안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의 추대로 의장이 당선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 캐스퍼 전기차 우선 구매제 시행

지자체·공공기관 대상...판매량 견인해 신규일자리 창출 기대

광주시는 18일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캐스퍼 전기차 우선 구매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을 새로 구매·임차할 때 캐스퍼 전기를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GGM 전기자동차의 안정적인 생산 토대를 마련하고 신규 일자

리를 창출하도록 돕는 취지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GGM은 7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 올해 캐스퍼 전기차 1만 70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캐스퍼 전기차는 유럽, 일본 등에 수출돼 GGM이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초기 수요를 늘리고 전기차 대중화 기반 조성에도 힘을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박형대 “한우 자급률 높이고 기준가격제 도입해야”

전남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

‘소 한 마리를 내놓을 때마다 289만원씩 손해를 보고 100마리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1년 간 1억 5000만원이 빚이 쌓인다.’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원은 18일 열린 제 381회 전남도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열린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수입 개방과 미흡한 한우 정책의 결과로 한우 산업의 경쟁력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3월 기준 한우농가가 전년도 같은 기간(8만 6524농가)보다 4297농가 줄어든 데는 한우 농가의 경영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통계청의 ‘2023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인용, 지난해 한우 비육우 1마리당 손실

이 142만 6000원으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73만 6000원으로 커졌다고 언급했다. 비육우는 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로, 사육비를 고려하면 한 마리를 키우 팔 때마다 142만 6000원을 손해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물가를 잡겠다고 수입소고기 무관세 10만 t을 도입한 뒤 한우 폭락이 시작돼 20개월째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료구매자금 이차지원, 소비촉진 등 소극적 정책보다 30%인 한우자급률을 높이고 기준가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입소고기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노르웨이 기업과 해상풍력 연구 협력 김영록 전남지사가 1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노르웨이 해상풍력 발전사 딥윈드오프쇼어(DWO), 서부노르웨이응용과학대학(HVL),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와 ‘해상풍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안네 카리 한센 오빈드 주한 노르웨이대사, 한스 페터 오브레릭 딥윈드오프쇼어 총괄부사장, 리브레이더인 그림스벳 HVL 해양공학센터장,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등 안전 강화

종합보험료 지원도

전남도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등화장치와 종합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가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반면, 사고 발생 시 안전장치가 미흡한 농기계

특성상 사망률이 높아 사고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

실제로 2022년까지 3년간 전남지역에선 582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28명이 숨지고 27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남도는 경운기 등 도로 주행 빈도가 높은 농기계에 저속차량 표시등과 방향지시등을 부착하는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

(3500대)을 지원한다.

또 농기계 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신체적 손해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가도록 농기계 종합보험료로 107억원을 지원한다. 대인·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하며, 가입할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2024. 07. 02(화) ~ 07. 04(목)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 전국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금상, 은상, 동상
- 접수기간 : 2024년 7월 2일(화) ~ 7월 4일(목)
- 인터넷/모바일신청 :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실시간가능)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신청접수 후 작품을 우편 발송
- 결과발표 : 2024년 7월 18일(목/예정),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10,000원 (20명 이상 단체 할인 7,000원)
* 단체접수 문의 : 062-220-0541
- 접수처 :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양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우61482)
* 작품 뒷면에 반드시 <유치원명 또는 학원명, 반이름, 주소, 이름, 나이, 연락처> 기입바랍니다.
* 단체참가의 경우 메일로 명단을 발송바랍니다.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 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서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062-220-0541 /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